

# 목장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인생 2막 1장

- 시리목장(경남 김해)의 하루 -



▲ 최말덕 여사(좌), 배수나씨(우) 두 모녀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 무남독녀 외동딸, 목장 아가씨 되다!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위치한 시리목장. 부모님과 무남독녀 외동딸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 목장은 여느 목장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겉은 평범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만의 세계가 펼쳐진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 세 식구가 함께 힘을 모아 일궈내는 풍경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불가하다.

## 사학전공에서 목장아가씨가 되기까지

“저는 목장에서 나고 자랐지만 목장에 소가 몇 마리인지 젖을 어떻게 짜는지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목장에서 일할 것이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죠.”

시리목장 배수나씨는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발굴작업도 하는 등 전공을 살려 취업을 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배수나씨가 목장에 들어서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건강악화다. 2007년 편도암을 선고 받은 아버지 때문에 하던 일을 정리하고 목장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그녀의 나이 28살. 그녀는 그때서야 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소의 생김새, 소의 생리활동 등 모든 게 어린아이처럼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고 한다.

배수나씨는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하기만 했는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진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고민 끝에 농수산대학에 입학해 전문적으로 목장일을 배워보기로 결심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배우기에는 학교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녀의 선택을 만류했다. 어머니는 평생 소를 길러온 엄마 아빠가 있는데 먼 곳까지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딸의 결심이 반갑지 않았다. 게다가 당장에 목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공백을 혼자 메우는 것은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의 선택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 개체관리는 전적으로 배수나씨 담당이다. 수시로 관찰하고 보살핀 덕분에 시리목장은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

## 갈등 피할 수 없어

시리목장도 어느 목장들처럼 기성세대와 후계자와의 갈등을 피할 순 없었다. 30여년 낙농을 영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다보니 마찰은 당연지사. 그녀는 처음엔 부모님이 시키는대로만 했는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니 어느 순간 주체할 수가 없었지만, 그들보다 늦게 시작하고 낮은 지식임은 사실이기에 반기를 들 수 없었다고. 때문에 낙농관련 교육을 쫓아다니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착유장에 들어오시지 않은지 6년”이라면서

이제는 소가 생김새가 비슷해 개체 특성도 모르겠다고 하신다며 웃었다. 그녀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적이었다. 전에는 마릿수는 많아도 성적은 좋지 못했는데 그녀가 적극적으로 목장경영에 나서고부터는 성적이 올라 부모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 살처분이라는 벽을 넘어

그녀에게 가장 큰 시련은 2014년이였다. 2014년 4월 우결핵 판정을 받고 5월 14일 전두수를 살처분했다. 텅 빈 우사를 보며 허망함에 빠진 그녀는 앞으로 목장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가 가장 고민이었다. 그때 그녀에게 가장 힘을 주는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잘될 것이라고 주문처럼 늘 말했고, 그녀의 말대로 어느새 시간이 흘러 2014년 12월 12일 착유우 30마리를 들여 목장을 다시 시작했다.



▲ 최말덕 여사는 지역내 우우소비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배수나씨는 육성우와 착유우 모두 데리고 와 번듯하게 목장을 시작하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착유우만 고르고 골라 30마리를 들였다고. 좋은 소가 있다고 하면 보러다니고 이제부터가 정말 목장 인생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먼 곳까지도 소를 보러 다녔다. 흥성에서 데려온 소부터 눈에 들어오는 소들을 모아 나의 목장을 새롭게 꾸려나갔다. 이때부터는 부모님의 그늘이 아닌 오직 ‘나의 목장’이 시작된 것이다.

## 나에게 면사무소란

배수나씨의 직업은 하나가 아니다. 목장경영과 함께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배수나씨에게 면사무소란, 휴식처이자 안식처 그리고 도피처라고 말한다. 그녀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사회생활도 해볼 만큼 해본 자신이 목장에서 쳇바퀴 돌 듯 지내는 것이 쉽

지 않았다고. 많은 것을 보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기에 1년 365일 쉼 없이 일하는 목장일이 그녀에게는 크게 다가왔다.

그러던 중 면사무소에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계약직 자리를 제안했고 그녀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목장일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컸고 그녀를 지지해주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녀는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목장에서 5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시간도 9시부터 4시 30분까지. 게다가 유연근무를 할 수 있고 인심 좋은 동료들 덕분에 목장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편의를 봐주기도 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장이다. 그녀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다보니 사회성이 결여되고 내 자신이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면서 “관공서에 출근하면서부터 말동무도 많아지고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사람 사는 얘기들도 듣고 나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올 연말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게 아쉬울 뿐이다. 배수나씨는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살처분하면서 육성우가 없어서 남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올 연말쯤 되면 육성우가 올라와 일손이 바빠지기 때문에 목장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관공서 일은 정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 그녀의 꿈

그녀가 그리는 목장의 청사진은 평범하다. 개발제한구역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목장을 이전하는 것이다. 목장을 이전하지 않고 손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아 사실상 그건 포기상태다. 목장보다 뒤늦게 지정된 문화재가 인근 500m 내로 접하고 있어 대동면은 목장을 일궈나가기 쉽지는 않은 동네다. 이 동네에서 소를 키우는 이들은 단 셋 뿐이다. 그 중 낙농을 하는 곳은 두 집. 두 집 상황은 모두다 마찬가지다. 더 이상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입지라 이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도 만만치가 않다. 김해시가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치솟은 땅값과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목장 허가가 나지 않아 이전은 꿈도 꾸지 못한다. 대안으로 인근지역인 밀양에 토지를 매입했지만 그건 최후의 결정으로 남겨두고 싶은게 그녀의 속마음이다. 배수나씨는 “되도록이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면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나 우리 모두의 추억을 저버리는 것 같아 터전을 떠나지 않고 목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혜진 축산경제신문 기자〉